

# 社會的 커뮤니케이션의 構造와 機能에 관한 研究

## 序 文

“communication”이라는 말은, Schramm 박사가 지적했듯이, 라틴語 “Communis”에서 유래하는데, 이것은 “共同”, “共有”를 意味한다. 따라서 커뮤니케이션이란 “關係된 主體들 사이에서 서로 symbol을 交換함으로써 共通點을 共有하는 活動”이라 定義할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은 生命體 內部에서 일어나는 動物的 水準에서도, 生命體와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사이의 社會的 水準에서도 발견된다. 커뮤니케이션 活動은 모든 生命體가 그 生命을 유지하기 위한 必須的인 것이므로, 그것은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발견되며, 모든 학문 분야의 研究對象이 된다. 그러나, 이 짧은 論文에서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모든 問題를 검토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여기서는 論議의 범위를 人間과 人間間, 또는 人間과 社會間에서 發見되는 社會的 커뮤니케이션으로 제한하겠다. 第一章에서 보게 되듯이, 여러 研究를 검토함에는 커뮤니케이션의 세가지 類型을 따르는 것이 편리하다. (Chart 1. 참조)

### 第一章 自然的 雙方 커뮤니케이션(對人 커뮤니케이션)

첫번째 類型은 對人 커뮤니케이션이라 불리는데, 이의 기본적 特徵은 雙方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점과 機械장치의 介入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自然的 雙方 커뮤니케이션”이라 부를 수 있다.

이러한 類型의 커뮤니케이션을 研究한 代表的 研究者로서 G.H. Mead를 들 수 있다. 人間의 精神的 生活이란 태어날 때에는 아무 것도 쓰여 있지 않은 白紙와 같다. 그의 自我와 마음은 他人과의 交流에 의해 점차 발전된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 보고 모양새를 고치듯이, 우리는 대체로 他人의 反應에 의해 우리의 行動을 統制한다. C.H. Cooley는 이러한 相互作用을 ‘反射鏡 自我(looking glass self)’라 표현하면서 이러한 相互作用을 다음의 세가지 요소로 分析했다; “1. 他人에 비친 자기 모습의 상상, 2. 自身이 본 자기 모습의 상상, 3. 其他의 감정—自尊心 또는 치욕감 등” Mead는 이러한 Cooley의 理論을 確大하여 ‘他人’을 ‘一般화된 他者’(generalized others)라 하였는데 이것은 Cooley의 ‘反射鏡’에 해당한다. 그는 또한 이러한 상징적 相互作用에서 다음과 같은 세 단계의 메카니즘을 설정하였다; 즉 1. 他人에 대한 行動, 2. 他人의 反應, 3. 그 反應에 대한 再行動의 단계 등

Chart 1 Matrix of Communication Studis

Types of Communication	naming	author	structure (institution & content)	function (effect & influence)	discipline		
I natural two-way communication (personal com.)	symbolic interaction	Cooley (1) Mead (2) Buber (3) Binswanger (4) Austin (5) Hall (6)	three step interaction I and Me Es or Du	development of self and mind	philosophy psychology psychiatry linguistics Ethology		
	Dasein-analyse verbal com. non-verbal com.	Fast (7) Barnlund (8) Tsujimura (9)	territory spatial distance Public self and private self ISHIN-DENSHIN	restoration of human being performative cultural friction enlightenment			
	joint area of I & II	personal influence	Lazarfeld (10) Hidaka (11) Merton (12) Rogers (13) Allport (14) Cantril (15) Morin (16) Shimizu (17) Tsujimura (18)	two-step-flow sacrifice and intimacy five step process	check of mass com. large amount of selling malfunction of mass com.	sociology social psychology	
		Theoretical framework	Lasswell (19) Lazarfeld & Merton (20)	five W	three function status giving enforcement of social Norm marcholizing dysfunction selective exposure	law political science history sociology	
			Comparison	Riley & Riley (21) Schramm (22) Inkeles (23) Schramm (24) Tsujimura (25) Martin (26) Holt (27)	Soviet type Four theories three polar dynamics	control of information	social psychology
		international propaganda	prestige paper	Tsujimura (28) Lasswell (29) Schramm (30) Tsujimura (31)			
			joint are of II & III	third wave	electronic cottage	home as office decentralization restoration of autonomy enlargement of selection	sociology social psychology futurology psychiatry
				mechanical two-way Communication (custom com.)	Toffler (32) J.T.T. (33) Tsujimura (34)	INS	

이다. 他人으로부터의 反應은 자신에 대한 기대일 것이므로, 그것을 客觀的 自我라 할 수 있겠는데, Mead는 이것을 'ME'라 명명하였다. 또한 'ME'에 對한 再行動(再反應)은 主觀的 自我라 할 수 있는데, Mead는 이것을 'I'라 稱하였다. " 'I'란 他人의 態度에 대한 感覺기관 의 反應이며, 'ME'란 自己 스스로가 추정하는 他人의 態度의 조직적인 集合이다. 他人의 態度는 조직적인 'ME'를 構成한다. 그리고 個人은 이러한 'ME'가 'I'인 것처럼 反應 行動 하게 된다." <sup>2)</sup> 비록 Cooley가 社會學者이고 Mead가 心理學者이지만 그들의 論議는 대단히 哲學的이다.

여기서 이러한 雙方關係를 分析한 두가지의 또 다른 哲學的 업적을 소개한다. 한 사람은 독일 哲學者인 M. Buber이고, 또 한 사람은 호주의 정신과의사인 L. Binswanger이다. Buber는 그의 著書 「ICH UND DU」(I and Thou)에서, 우리는 對象을 물질로서가 아니라 완전히 人間的인 존재로서 다루어야 한다고 하였다. "情報의 蓄積이란 얼마나 광대한 것인가! *It, It, It.*" <sup>3)</sup> 우리는 情報의 세계에서 살고 있고 많은 정보에 둘러 싸여 있다. 그러나 거의 모든 情報은 'ES'(It)로 취급되고 있다. Buber는 'ICH-ES(I-It)' 관계가 만연하는 것을 비판하고, 'ICH-DU (I-Thou)' 관계의 회복의 필요성을 主張한다.

Binswanger는, 정신의학적인 觀點에서, 정신병환자들을 완전한 人間으로 취급할 것을 강조하였다. 초기에 그는 Freud의 精神分析方法을 채택하였으나, 나중에는 그의 凡性慾主義(pan-sexualism)를 비판하고 'Daseinsanalyse'를 제시하였는데, ('Dasein'이란 M. Heidegger의 用語로서 진정한 人間(true human being)을 意味한다.) 여기서 libido에 의해 統制되는 無意識의 世界는 제외된다. <sup>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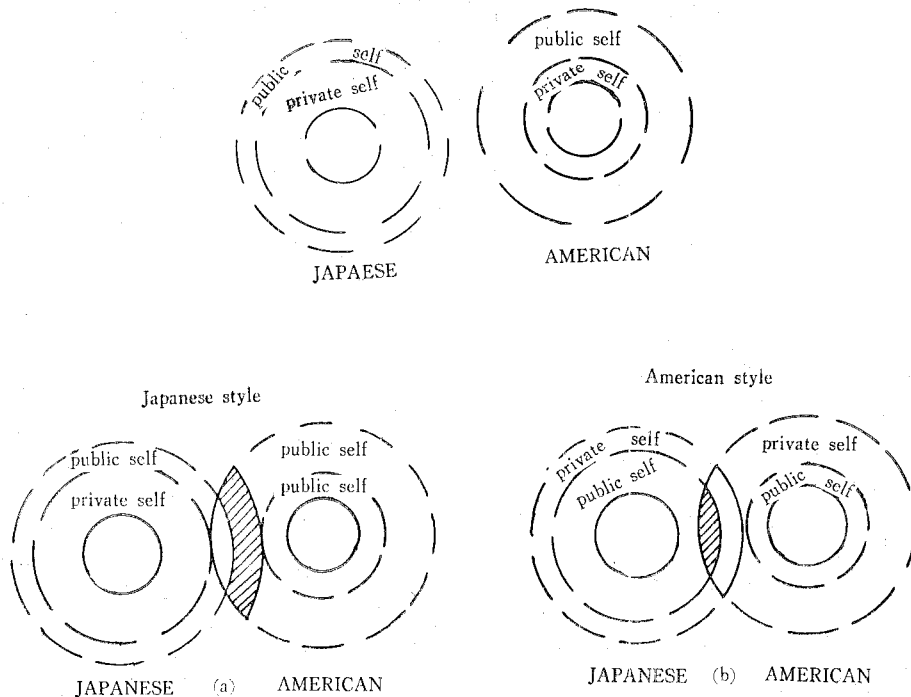
英國의 哲學者인 J.L. Austin은 비교적 일찍 死亡하였는데, 言語行爲를 哲學的으로 分析하였다. 그는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狀況이나 事實을 묘사하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行爲의 연출에도 관여하고 있다고 한다. 예컨대 결혼식의 서약문의 경우, '이 여자를 法的인 關係에 있어 당신의 아내로 받아들입니까?' '예'라 할 때, 신랑은 이 결혼 자체에 있어서 어떠한 행동을 한 것이지, 이때 한 말이 한 쌍의 남녀가 결혼식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고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sup>5)</sup> 이러한 생각에 입각하여 그는 언어행동을 세가지 종류의 행동으로 구분하였는데, 그것은 말씨행동(言語行動 그 자체), 表情행동(言語行動 중 발견되는 행동)과 言語行動에 의해 중재된 행동의 셋이다. 다소 궤변적이긴 하나, 이것은 言語 커뮤니케이션(verbal communication)에 있어서 날카로운 철학적 논의인 것이다.

言語 커뮤니케이션에 反하여, 미국에서는 非言語 커뮤니케이션(non-verbal communication)에 대한 研究들이 있다. 우선 Hall의 著書로 'THE SILENT LANGUAGE'와 'THE HIDDEN DIMENSION'을 들 수 있는데, 여기서는 動物行動學(ethology)에 기초하여 人間 行動에 있어서 영역의 문제와 공간적 거리의 문제를 분석하였다. 人間에 있어 어떤 영역의 存在는 두 사람이 탁자를 가운데 놓고 맥주를 마시며 對話할 때 명확히 나타난다. 두 사람 모두 중앙

선의 半은 자기 영역이요, 나머지 半은 상대방의 것이라는 默契를 하고 있다. 어느 한쪽이 자신의 잔을 상대방의 영역에 놓을 경우 상대방은 화가 나거나 언짢을 것이다. 이렇듯 쌍방의 默契는 말을 하지 않고서도 成立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종류의 커뮤니케이션을 非言語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영역을 갖는 문제와 공간적 거리를 갖게 되는 문제는 두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全世界 어디에서나 共通인 것이요, 다른 하나는 특정 文化에 特有한 것이다. 前者에 대해 그는 4가지 서로 다른 거리(distance)를 設定하였다. 즉 1. 친밀한 거리(가까운 면 : 15cm, 떨어진 면 45cm), 2. 個人的 거리(75cm, 120cm), 3. 社會的 거리(210cm, 360cm), 4. 公共的 거리(750cm이하, 750cm이상) 등이다. 著者は 이 研究에 'proximics'<sup>6)</sup>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였다. 後者의 文化的 差異에 대해서 그는 美國人和 日人 또는 日人和 아라비아인의 비교를 시도했다. 약간의 예를 든다면, 日本人은 集團으로 모여서 行動하거나 간격(MA)에 대해 민감한 경향을 가진다. Arabia人들은 肉體的 접촉에 무관심하거나, 公的 환경 내에서 자신의 固有영역을 가지려 하지도 않는다. 이러한 종류의 研究는 文化的 알려이나 異質文化 사이의 오해의 해결에 도움을 준다.

Fast의 「BODY LANGUAGE」란 책은 基本的으로는 Hall의 그것과 같다. 우리는 body language란 말을 들으면 피부나 몸의 직접적 접촉과 같은 것을 생각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약간의 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body language는 일어날 수 있다. body language

Figure 1. Public Self and Private Self



는 情報를 傳達하는 行動인데, 몸의 자세나 gesture에 의해 표출적이거나 암시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다.<sup>7)</sup>

몸의 직접적 접촉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Barnlund의 흥미로운 저서를 볼 수 있다. 여기서 日本과 美國의 大學生들을 비교하였는데,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美國人은 日本人보다 훨씬 높은 비율의 신체적 접촉을 한다고 한다. 거기에 더하여 그는 日本人과 美國人의 社會的 自我(public self)와 個人的 自我(private self)의 영역의 폭에 있어서의 차이를 비교하였다.<sup>8)</sup> 이것은 그림 1에 나타나 있다. 가장 작은 원U는 personality의 中心에 위치한 無意識世界를 意味한다. 그 다음의 원은 private self의 범위를 가리킨다. 끝으로 가장 큰 원과 둘째 원 사이의 지역은 public self의 범위를 의미한다. 日本의 도표에서, private self의 범위는 비교적 넓고 public self의 범위는 좁다. 반대로 美國의 도표에서는 정반대의 경향이 뚜렷하다. 이제 우리는 日本人과 美國人 사이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가정해 보자. 이 커뮤니케이션이 (a)의 style처럼 될 경우 美國人은 빗금부분을 불평할 것이다. 왜냐하면, 빗금부분은 아직 美國人에게는 public self의 분야이기 때문이며, 美國人은 원래 日本人의 private self까지를 바랐는데 日本人은 그렇게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美國人은 日本人이 소심하고 受動的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만일 이 두 사람이 美國式 style (b)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면 日本人은 빗금부분을 불평한다. 이 빗금부분은 日本人에게는 private self의 분야이기 때문이며, 日本人은 他人에 의해 侵入당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결국 日本人은 美國人이 무례하고 뻔뻔스럽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상이 美國의 非言語 커뮤니케이션 研究이다. 이에 반해 우리는 日本이나 전통적 東洋 諸國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고급 정신 文化를 발견할 수 있다. Tsujimura는 이런 주제를 nonverbal communication의 중요한 형태로서 채택하였다<sup>9)</sup> 이런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은 日本語로 'ISHIN DENSHIN'(영어로 직역하면, 말을 하지 않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교류한다는 뜻)이라 표현할 수 있다. 이 말의 起源은 KEITOKU DENTO ROKU라는 中國책에서 유래하는데, 이 책은 부처의 제자들의 傳記를 모은 것으로 13세기 宋 王朝때 발행된 것이다. 이책에서 다음과 같은 文章이 발견된다. “부처의 死後, 부처님의 설교의 정수는 KASHO(제자 이름)에게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되었다.” 부처가 佛敎에 대하여 REISHU山에서 가르칠 때, 손에 있는 꽃을 들어 올리는 순간 KASHO는 어떤 암시에 의해서 놀라었으며 희열의 정신상태에 이를 수 있음에 미소지었다. 이 일화는 日本에서 'NENGE MISHO'라 부르는데, 이것은 꽃을 들어 올리고 미소를 짓는다는 뜻이다. 결국 우리는 non-verbal 커뮤니케이션을 두 가지로 분류해야 하는데, 하나는 소위 body language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고도의 정신적 言語라는 것이다.

위에 언급된 여러가지 研究들은 모두 personal communication에 해당한다. 이런 종류의 커뮤니케이션이, 기계 장치의 介入이 없고 雙方的인 특성을 지닌 커뮤니케이션의 고유한 형

태이므로, 한편으로 형이상학적인 哲學의 研究對象이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형이하학적인 動物生態學(動物行動學)의 研究對象이 되기도 한다. 이와는 달리, 매스 커뮤니케이션이 기술의 진보와 함께 발전되어 왔는데 이것은 第二章에서 說明하겠다. 이에 앞서 여기서는 personal communication과 mass communication의 교량적인 분야에 접근한 研究들을 다루는 것이 적합하겠다.

우선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의 二段階흐름’(two-step flow of communication)을 언급하겠다. 二段階 흐름이란 말할 것도 없이 情報가 二段階를 거쳐서 전달됨을 의미하는데, 달리 말해 mass media로부터 意見指導者(opinion leader), 意見指導者로부터 受容者에게 전달됨을 의미한다. 이 假說은 최초로 Lazarsfeld의 「PEOPLE'S CHOICE」에서 제시되어 Lazarsfeld와 Katz의 「THE PERSONAL INFLUENCE」<sup>10)</sup>에서 이해하기 쉽게 검증되었다. 後者の 著書에서 意見指導者는 서로 상이한 네가지 分野나 계층—상품 판매, 유행, 영화관람, 공적인 문제—에서 함께 발전되었다. 二段階 흐름 理論은 日本에서 다른 방식으로 發見되었다.

意見指導者라는 말은 엄밀한 意味에서 중요한 公的인 문제의 범위 내에서 사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日本에서는 意見指導者란 mass communication에 대해서 대항할 만한 힘으로서 기능할 수도 있다.<sup>11)</sup> Lazarsfeld와 Katz의 著書에서는 모든 피실험자가 女子로 한정되어, 그 결과 公的인 문제에서 쉽게 意見指導者가 될 수 있는 아버지나 남편이 表本에서 빠져 있었다. 따라서 意見指導者의 意見과 mass media의 意見과의 差異를 검토할 수가 없다. 이 점이 「PERSONAL INFLUENCE」에서 보이는 가장 큰 약점인 듯 하다.

그렇다면, 나는 MERTON의 고전적 저서 「MASS PERSUASION」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두말 할 것도 없이 이것은 戰時 公債 판매를 위한 라디오 캠페인의 社會心理學的 分析이다. 그는 왜 Kate Smith의 캠페인만이 놀라운 成功을 거두었는지에 대해 分析했다. 그는 특히 그녀의 캠페인의 對人 소구력과, 內容에 있어서 희생적 主題의 탁월성을 강조했다.<sup>12)</sup> 전쟁터에서의 젊은 軍人들의 희생뿐만 아니라, 18시간 동안 마라톤 방송을 수행한 Kate Smith의 희생은 受容者에서 특별한 호소력을 가졌던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저서는 mass communication과 personal communication의 연결分野에 해당하는 저서라 할 수 있다. Rogers의 傳播 研究는 Lazarsfeld와 Katz의 연구의 확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으나, 社會的 水準에 있어서 채용자의 다섯가지 범주(innovator, early adopter, early majority, late majority and lagger)와 채용과정에 있어서의 5단계 구분(인지, 흥미, 평가, 시도, 채택)은 독창적인 理論體系로서 매우 교훈적인 것이다.<sup>13)</sup> 이 이론에서 그는 5단계 채용과정 중에서 認知단계에서는 mass communication의 역할이 중요하고, 評價단계에서는 personal communication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역설하였다.

마지막으로 소문(rumor)에 관한 일련의 研究가 있다. Allport와 Postman의 연구가 대표적인데, 그들은 다음의 유명한 公式을 만들어 냈다. 즉 rumor의 확산 정도는, 관심있는 사

람들에 있어서 主題의 重要性和 主題의 신뢰도에 대한 증거의 모호성과의 곱으로 계산된다. 이 공식은  $R=i \times a$ 로 나타난다.<sup>14)</sup> 증거의 모호성은 mass media의 불만족스런 기능을 反映한다. mass media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모호성은 zero로 낮아질 것이며 rumor가 생길 이유가 없다. rumor가 비록 口傳에 의한 personal communication일지라도, mass communication을 고려하지 않고 그것을 分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Cantril의 「INVASION FROM MARS」<sup>15)</sup>는 1938년 10월 30일 CBS의 프로그램 'Mercury Theatre'에 의해 야기된 실제의 공포를 分析한 것이다. Morin의 연구도 1969년 5월에 프랑스 Orleans市에서 발생한 실제의 rumor를 分析한 것이다. 그 rumor의 내용은 어린 소녀들의 유포극이었다. 그가 mass media의 보고와 관련하여 그 rumor의 발전 과정을 分析하면서, type I과 type II의 교량적 분야를 개척하였다. 게다가 그의 독창적인 方法論은 주목할 만하다. 그는 最近 社會學의 主流—統計的 方法에 비판적 관점을 견지하면서, 그렇게 자주 일어나지 않는 심각한 현상들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그는 社會의 위기에 많은 중요성을 두는 임상사회학을 제안하였다.<sup>16)</sup>

日本의 研究 중에는 1947년 초에 발행된 Shimizu의 研究를 빼 수 없다. 그는 戰時 경험에 입각하여, mass communication의 검열과 관련지어서 rumor의 발전 mechanism을 分析하였다.<sup>17)</sup> Tsujimura 또한 mass media의 정치적 역기능에 관련하여, 소련에서 풍자적 일화가 유포되는 것을 分析하였다.<sup>18)</sup> type I과 type II의 연결 분야는 주로 社會學이나 心理學에 의해 개발되었다.

## 第二章 기계적 一方的 커뮤니케이션(매스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러지의 발달에 의해서 가장 먼 곳까지 많은 量의 情報를 전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新聞이나 잡지같은 인쇄매체에서 영화, 라디오, TV같은 비인쇄매체에 이르기까지, 매스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는 오늘날 선진국에서 매우 발달되어 있다. 이처럼 기계에 의해 중재되는 커뮤니케이션은 對人 커뮤니케이션(personal communication)과 같은 융통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 즉 커뮤니케이터(新聞社나 放送社)로부터 受容者에게로라는 一方的 커뮤니케이션 밖에 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매스 커뮤니케이션은 기계적 일방적 communication이라 특징지어질 수 있다. 새로운 매스 커뮤니케이션 매체가 나타났을 때,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것이라는 이유에서 학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놀라워 했다. 따라서 매스 미디어의 구조와 기능을 說明하고, 그 媒體들을 자신들의 理論的 틀에다 위치시키는 것이 사회과학자들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理論的 研究 중의 대표적인 하나가 Lasswell의 논문으로, 여기서 그는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理解를 위한 5W의 公式을 제안하였는데, 그것은 'Who says What in Which

channel to Whom with What effect?’이다. 또한 그는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3가지 基本的 기능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1. 환경감시 기능, 2. 주변 환경에 따르는 사회 부분들과 연결시키는 기능, 3. 社會的 유산의 전수기능.<sup>19)</sup>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에 대한 또 하나의 古典的 研究는 Lazarsfeld와 Merton의 논문으로, 여기서 그들은 잠재적 기능(예기치 않은 결과를 빚어내는 기능)을 3가지 지적하고 있는데, 그것들은 지위부여기능, 사회규범의 강화 기능, 마취적 역기능 등이다.<sup>20)</sup>

이러한 研究들이 창시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이후로 꽤 오랫동안 Lasswell式의 公式은 매스 커뮤니케이션 理論의 分野를 지배해 왔으며, 새로운 경향은 Riley & Riley의 研究에와서야 시도되었다. 이들은 Who에서 Whom으로의 一方的인 Lasswell式의 公式에 비판적 시각을 가졌으며, 수용자(audience)가 언제나 原子化된 個人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즉,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힘이 全能한 것은 아니며, 그 효과는 受容者가 처해 있는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sup>21)</sup> Riley의 圖式에 의하면, 커뮤니케이터와 커뮤니케이티 兩者 모두가 그 자신의 1차집단을 가지며, 각각의 매스 미디어 행위는 이 1차집단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Schramm은 커뮤니케이터 뿐만 아니라 커뮤니케이티도 자신의 1차집단을 갖는다는 Riley의 주장에 만족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커뮤니케이티에 관해서는 그의 1차집단을 파악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며,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커뮤니케이티는 신문사나 방송사 같은 커다란 組織體系로 파악해야 한다고 하였다.<sup>22)</sup>

간단히 말해서, 위에서 언급한 研究들은 매스 커뮤니케이션을 파악하는 方法에 대한 代表的 理論들이라 하겠다. 다음 단계로 本人은 매스 커뮤니케이션 體制의 비교에 관한 몇 개의 研究를 언급하려 한다.

우선, Inkeles의 소련 매스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研究를 보아야만 한다.<sup>23)</sup> 自由主義 國家의 市民들인 우리는 우리의 매스 커뮤니케이션 樣式이 세계적으로 보편적인(valid)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Inkeles의 研究는 소련 매스 커뮤니케이션 體制가 우리들의 體制와는 매우 다름을 보여준다. 그는 Marx-Lenin 思想의 特性들 뿐만 아니라 소련 사회 內의 매스 커뮤니케이션과 對人(personal) 커뮤니케이션의 實狀까지도 分析하였다.

Schramm은 이 소련의 樣式까지도 포함해서, 네 가지(커뮤니케이션) 양식으로 分類하였는데, 그것은 ① 권위주의 이론 ② 자유(방임)주의 이론 ③ 사회책임 이론 ④ 소련式 공산주의 이론등이다.<sup>24)</sup> 이 네 가지 이론들 중, 社會責任 理論이 自由主義 國家들의 理想型이나, 아직까지 歷史的 現實로 實現化된 적은 없었다.

Inkeles의 친밀한 동료인 Tsujimura는 日本 매스 커뮤니케이션과 소련 매스 커뮤니케이션을 비교하는 여러 研究들 뿐만 아니라, 政治的 무대의 3가지 중요 요소들의 관계를 비교하는 研究를 행하였는데, 여기서 3가지 요소란 政府, 言論, 輿論이다.<sup>25)</sup> 이 三極圖(three polar



그림 2.3가지 요소의 조합

유형	경우	정부	언론	여론	예
	(1)	+	+	+	북쪽 영토의 환수 및 Sensaku群島의 점령
	(2)	+	+	-	日·中共 외교관계의 부활 및 Okinawa의 환원
	(3)	+	-	+	평화협정, 재무장 및 자위력 강화에 대한 결론
	(4)	-	+	+	田中 파문
	(5)	+	-	-	1960년 방위 조약의 수정
	(6)	-	+	-	J.N.R. 파업
	(7)	-	-	+	(?)
	(8)	-	-	-	공해, 교통사고

scheme)는 그림 2로 說明된다.

(+)記號는 政策에 대한 明白한 지지를 뜻하며 (-)記號는 그 반대를 뜻한다. 세 가지 要因의 組合에 의하면, 8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고, 4가지 패턴(A, B, C, D)이 發生된다. 비록 (+) 기호와 (-)기호가 반대이긴 하지만, 패턴은 3가지 요인간의 同一한 關係를 뜻한다. 즉 케이스 ①과 케이스 ⑧은 同一한 A패턴이다. 政府를 비판하는 오랜 전통을 가진 言論에 있어, 패턴 D는 言論과 輿論이 그 意見이 일치하며, 政府와 反對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러한 패턴의 例는 거의 없다. 이 패턴은 오직 政府가 어떠한 變명도 할 수 없는 큰 실책을 범할 때만 실현 가능하다. 言論에게 가장 불리한 패턴은 C인데, 이 패턴에서는 政府와 여론이 일치하고 오직 언론만이 고립된 것이다. 戰後 日本에 이러한 패턴의 例가 상당히 있다. 즉 戰後 日本 新聞의 主流가 진보적이거나 좌익지향이었고, 내각은 계속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여론이 신문을 지지하기 보다는 대개 政府를 지지하는 立場이었다. 몇 개의 例를 들면, 1951년 San Francisco 平和 조약 논쟁 時에, 言論이 주장하는 (소련을 포함하는) 全體平和條約과 政府가 추진하고 여론이 지지한 (소련을 제외하는) 部分平和條約의 대립이라든가, (言論에 의해 지지된) 1975년 日本 鐵道 勞組(J.N.R.)의 과격한 파업과 (정부와 여론에 의해 지원된) 그 반대 間의 對立등이다. 이런 例는 일일이 기술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어쨌든, 이 세 가지 極의 關係들로부터 중요한 정치 문제를 分析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다음 단계로는 國際 커뮤니케이션, 特히 國際的 선전에 대한 研究들이 나타나는데, Martin의 研究가 모든 것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代表的인 것이다. 그는 서방 自由主義 국가들 뿐만 아니라 동구 共產主義 국가들의 선전 활동까지도 기술하고 있다.<sup>26)</sup> Holt의 연구는 RFE (自由 유럽 放送)의 특수한 활동에 보다 국한된 것이다.<sup>27)</sup> 전파에 의한 심각한 전투는 보이지 않는 형태로 매일매일 계속되고 있다. 위의 두가지 美國의 研究에서 출발한 Tsujimura의 論文은 (對소련 放送인) Radio Liberty의 또 다른 중요한 活動을 기술하고 있고, 또 RFE

와 RL의 활동의 지속문제에 집중된 1971년 美國 의회의 논쟁을 따르고 있다.<sup>28)</sup> 공산주의 국가가 그 나라의 매스 커뮤니케이션을 통제하는 것이 계속되는 한, 정보의 부족과 왜곡은 나타날 수 밖에 없으며, 서방의 선전에 의해 침투될 여지를 남기게 될 것이다. 물론 공산측에서 서방의 전파를 방해하려고 노력하지만,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제 제 2 장을 끝내면서, 비록 구조적 分析과는 다르기는 하지만,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비교내용분석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분야에도 너무 많은 연구들이 있어서, 여기서는 대표적인 몇 가지를 뽑기로 하겠다. 우선 Lasswell과 그 동료들이 美國, 英國, 프랑스, 독일, 소련의 5개국의 권위지를 최초로 量的인 分析을 하였다.<sup>29)</sup> 그들은 50년 간의 이들 신문들의 사설의 경향을 분석하였는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自由主義 국가에서의 平時에는 社說에서 사용되는 주요 Symbol들의 다양성이 증가하고 사용 빈도가 줄어드는 반면에, 全體主義 國家에서와 戰時에는 다양성이 감소하고 그 빈도가 증가하였다. 이 研究는 권위지의 歷史的 또는 수직적인 경향을 연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Schramm의 「One Day in The World Press」는 地理的 또는 수평적 비교 연구라 할 수 있다.<sup>30)</sup> 그는 중대사건인 헝가리 폭동과 수에즈 운하 분쟁이 한꺼번에 일어난 날인 1956년 11월 2일 단 하루 分을 뽑아 14개국의 권위지를 分析하였다. 어떤 신문이 헝가리 사건이나 수에즈 운하 사건에 얼마만큼의 지면을 할애했는가를 비교해 보는 일은 매우 흥미로운 것이다.

Tsujimura는 내용분석에 대한 많은 研究를 했는데, 그 중 2개는 소개할 만하다. 그 하나는 외국 권위지 6개와 日本의 주요 6개지의 12개 신문이 모택동의 사망을 보도한 1976년 9월 10일 字分을 선택하여 보도하였다.<sup>31)</sup> 日本 신문들이 세계 신문들 중 이 사건을 크게 다루고 있으나 그 내용은 피상적이었고 중요한 내부문제에는 철저히 않았다. 다른 하나의 논문은 두차례의 하이재킹에 관한 것으로, 하나는 1977년 9월 28일 Dacca (Bangladesh)에서 일어난 JAL 사건이고, 또 하나는 약 보름 후인 1977년 10월 14일에 Mogabiscio (Somalia)에서 발생한 Luft Hanza 사건이다.<sup>32)</sup> 두 정부가 채택한 결정은 매우 대조적이다. 日本 정부는 납치범들의 요구를 수락하여, 급진 적군파의 수감자들을 양도하고 막대한 금액의 돈을 지불해서 인질의 생명을 구하였다. 그와 반대로 서독 정부는 납치범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몇명의 인질의 희생을 감수하고 GSG9 특공대를 투입 그들을 사살하였다. 日本 정부의 정책은 비둘기로서, 또 독일 정부의 정책은 매로 불릴 수 있다. Tsujimura는 정부 정책을 지지한 그들의 의견에 따라서 6개 日本 주요 일간지들을 비교해 보았다. 여러 일간지들의 특성을 명확히 하는데에 內容分析은 유효한 것이다.

커뮤니케이션의 두번째 유형 즉 매스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연구는 거의 무한히 언급될 수 있으나, 여기서 그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이 영역에 있어서의 연구 대상이 거시적 사회 현상이기 때문에, 法學, 政治學, 歷史學, 社會學 및 社會心理學 등의 학문들이 이에 포함

된다.

그러나, 매스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최근 상황은 쇠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1959년에 「Public Opinion Quarterly」는 이러한 쇠퇴의 징후를 경각시켜 주는 특별주제를 다루었다.<sup>33)</sup> 왜 매스 커뮤니케이션 연구가 쇠퇴하는가에 대한 이유는 매스 커뮤니케이션에 관련된 거의 모든 문제들이 명확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수많은 불명확한 문제들을 갖고 있다. 예를 들면, TV프로그램의 폭력과 청소년 범죄 간의 관계같은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현 시점에 있어 이용가능한 연구기법으로서는 명확히 하기가 불가능하다. 매스 커뮤니케이션 연구에 있어서의 이러한 정체와 함께, 기술의 새로운 개발은 커뮤니케이션의 세번째 유형이라는 新世界를 열었고, 학자들의 관심이 이제는 소위 새로운 미디어, 즉 세번째 유형의 연구로 바뀌고 있다. 그러나 이 커뮤니케이션의 세번째 유형은 아직 충분히 개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두번째 유형과 세번째 유형의 접합 영역에 있어서의 연구도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표 1에 있어서, 두번째 유형과 세번째 유형의 접합영역을 위한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는 세번째 유형 자체를 고찰할 것이다.

### 第三章 기계적 雙方 커뮤니케이션

#### (고객 커뮤니케이션—custom communication)

기술의 발달은 一方的 커뮤니케이션을 가져왔으나, 더 많은 기술적 발달, 즉 컴퓨터, IC(集積回路), 또는 광섬유 등은 雙方 커뮤니케이션을 도래케 했다. 이는 새로운 類型으로 불리워져야 한다. 雙方 커뮤니케이션 덕분에, 수용자는 커뮤니케이터에 의해 제공된 情報를 선택함에 있어서 그들 자신의 요구를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요구를 하는 수용자는 고객(custom)이라 부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번째 유형을 때로는 日本에서 custom communication이라 부르고 있으며, 이것의 代表的인 것이 CATV이다. Toffler는 이 새로운 경향을 「제 3의 물결」이라고 命名하였으며,<sup>34)</sup> 이제 이 「제 3의 물결」을 제 2의 물결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 그가 지적한 「제 3의 물결」의 새로운 時代로 접어들고 있으며, 이 시점에서 제 2의 물결(wave)의 시대를 지배했던 重工業은 쇠퇴하고 있다. 이러한 「제 3의 물결」의 가장 상징적인 例가 아마도 전자주택(electronic cottage)일 것이다. 따라서 이 전자주택을 검토해 보기로 하자. 전자주택이란 여러가지 전자장치가 설치된 작은 집이다. 만일 우리가 전자주택에서 산다면 우리는 우리의 집에서 일을 하거나 거래를 할 수 있다. 매일 사무실에 나갈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同軸 케이블이건 전화 케이블이건, 또는 광섬유이건 모든 케이블은 雙方 커뮤니케이션의 가능성을 제공한다. 기정과 사무실이 이러한 케이블로 연결된다면, 사람들은 자신의 전자주택 내에서 연결장치의 전반으로써 일을

수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작업장소와 주거지가 동일 장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제 1의 물결 時代의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 제 1의 물결 時代의 주요 작업이었던 농업이나 수공업에 있어서는 作業장소와 居住地가 동일했다. 이와 같이 하여, 제 2의 물결 時代의 본질적 특징인 集中化는, 노동자의 自律性과 수용자의 정보 선택을 위한 여지를 제공할 分散化에 의해 대치될 것이다. Toffler는 美國과 日本에서 이 새로운 潮流의 커다란 可能性을 발견했다. 日本의 경우, 우리는 이미 이러한 새로운 미디어에 대한 몇가지 실험적 체계를 갖고 있다. 도쿄 근교의 Tama 新市の CCIS(Coaxial Cable Infomation System)와 오오사카 근저의 Higashi-Ikoma의 HIOVIS(Highly Interactive Optical Visual Information System) 및 도쿄의 CAPTAIN(Character And Pattern Telephone Access Information Network System) 등이 그 例이다. 실험상으로는 기술적인 결과가 성공적으로 나타났으며, 문제점이란 이러한 기술적 결과가 경제적 성공을 가져올 것이냐 아니냐에 있을 것이다. 어쨌든 여러 기업, 특히, 철도회사들은 이 허가를 얻기 위해 무척 바쁘다. 이런 회사들은 이미 새로운 케이블 설치에 필요한 거대한 철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立場에 있다. J.T.T. (Japan Telephone and Telegraph Corporation)는 이 새로운 미디어 체계를 INS(Information Network System)이라 명명하고 같은 이름의 간행물을 최근 日本의 이러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얻는 데에 이용하고 있다.<sup>35)</sup>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러한 未來社會가 바람직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Toffler는 매우 낙관적이지만, Tsujimura는 그렇지 않다.<sup>36)</sup> 혼다 財團은 1982년 5월, 美國의 Ohio주 Columbus에서 “진보된 기술의 社會的인 영향”에 대한 국제 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本人은 해설자로서 이 심포지움에 참석하여, 컴퓨터 科學의 전문가인 Ohio洲立大學의 D. Hsiao 교수의 보고서에 대한 비평을 가했다. 그는 未來社會에 대하여, “벽없는 大學”, “교실없는 강의”, “campus와 같은 가정”이라는 저널리스트틱한 文句들을 사용하여 유망한 것으로 묘사했다. 이와 같이 그는 가정에 머물러서 하는 학습의 효율성을 강조한다. Tsujimura의 비평은 다음의 3가지 지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진정한 교육을 달성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는 교사나 친구와의 人間的 相互 접촉이 필수적이다. Campus와 교실은 교육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며, 학생들이 집밖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집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실제로 “at home”(안락함)의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을 뜻하며 안이하게 행동하게 될 수 밖에 없다.

둘째로, 편리한 기술이 발전됨으로써 학습과 교육으로부터 어떤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xerox와 같은 편리한 복사기가 사용되지 않았던 몇십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손으로 필요한 문헌을 筆寫했다. 물론 이것은 시간낭비이고 불편하기는 했으나, 학생들로 하여금 문헌과 불확실한 순수 학습에 열중하도록 강요했다. 복사기가 널리 퍼진 日本의 경우, SHAKYO(276개의 한자로 된 반야심경이라는 불교 교재의 筆寫)의 관

습은 아직 매우 일반적이다. 이러한 관습의 대중성에 대한 가장 상징적인 사실은 1976년 Yakushiji 寺院의 대응전의 重建이다. 그 비용이 10억엔(4백만불)에 달했으나, 이 엄청난 비용은 그 사원에 보존될 한 SHAKYO에 대해 1,000엔씩을 헌금한 一般 日本人에 의해 치뤄졌다. 이것은 276個의 漢字를 筆寫하는 신성한 노력에 백만 명이 참가했음을 意味한다. 만일 우리가 xerox를 사용한다면, 276字의 漢字로 된 종이 한 장에 1분도 걸리지 않았을 것이지만, xerox를 사용했을 경우, 佛敎 敎理의 본질은 이러한 복사에서 사라졌을 것이다. 敎理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동안 글자 한 자 한 자를 필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거래와 교육이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면, 自閉症의 경향이 증대할 것이다. 신경증 환자의 의식은 일반적으로 내향적이다. 그들은 타인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 하며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피한다. 「제 3의 물결」 사회는 이러한 自閉의 경향을 가속화할 것이며, 신경증은 치료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제 3의 물결」은 미래에 지배적으로 나타날 것이며, 우리는 그 물결을 타는데 있어서 성공이나 실패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임은 明白하다. 비록 우리가 제 3의 물결을 타는데 성공했다 하더라도, 어떤 새로운 장에—특히 정신의 영역에서—가 나타날 것이라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未來의 展望>

커뮤니케이션 研究의 潮流를 추적하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미래의 경향을 예측할 수 있었다. 즉 첫번째 유형의 커뮤니케이션(personal commnication) 연구는 여러가지의 철학적 관점에 의해 계속 개발되어 갈 것이며, 세번째 유형의 커뮤니케이션(custom communication) 연구는 두번째 유형의 커뮤니케이션(mass communication) 연구의 쇠퇴와 대조되면서 成長할 것이다. 세번째 유형의 커뮤니케이션 연구는 社會科學뿐만 아니라 哲學—특히 기술과 인류와의 관계의 문제에 대하여—에 의해서도 접근되어 갈 것이다.

REFERENCES

- 1) C.H. Cooley, HUMAN NATURE AND THE SOCIAL ORDER, 1902. p.184.
- 2) G.H. Mead, MIND, SELF AND SOCIETY, 1934. p.175.
- 3) M. Buber, ICH UND DU, 1923. Japanese Translation (J.T.) p.9.
- 4) L. Binswanger, ZUR PHANOMENOLOGISCHE ANTHROPOLOGIE, 1947, J.T. p. 258-p.295.

A. Tsujimura, "From Psychoanalysis to Morita-Therapy" presented to Yokohama Symposium, the Second Symposium on Communication Theory from Eastern and

- Western Perspectives (1982). In this article he followed the stream of psychoanalysis, Daseinsanalyse, Existenzanalyse (V.E. Frankl, THEORIE UND THEPAPIE DER NEUROSEN, 1956), and Morita-therapy which was developed by Japanese psychiatrist M. Morita.
- 5) J.L. Austin, HOW TO DO THINGS WITH WORDS, 1962. J.T. p. 23.
  - 6) E.T. Hall, THE SILENT LANGUAGE, 1959, and THE HIDDEN DIMENSION, 1966. J.T. p.165-p.176.
  - 7) J. Fast, BODY LANGUAGE, 1970.
  - 8) D.C. Barnlund, PUBLIC AND PRIVATE SELF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1973, J.T. p. 43.
  - 9) A. Tsujimura, "Some Characteristics of Japanese Way of Communication." in COMMUNICATION THEORY FROM EASTERN AND WESTERN PERSPECTIVES (ed. by L. Kincaid in printing)
  - 10) P. Lazarsfeld and E. Katz, THE PEOPLE'S CHOICE, 1948.  
P.Lazarsfeld and E.Katz, THE PERSONAL INFLUENCE, 1955.
  - 11) R. Hidaka, "Some Problems of the Mass Communication in Mass Society" in THE BULLETIN OF THE INSTITUTE OF JOURNALISM, UNIVERSITY OF TOKYO, No. 6, 1957.
  - 12) R.K. Merton, MASS PERSUASION, 1946.
  - 13) E.Rogers, DIFFUSION OF INNOVASIONS, 1992.
  - 14) G.W. Allport and L. Postman, THE PSYCHOLOGY OF RUMOR, 1945, J.T. p. 42.
  - 15) H. Cantril, THE INVASION FROM MARS, 1952.
  - 16) E. Morin, LA RUMEUR D'ORLEANS, 1969. J.T. p. 341.
  - 17) I.Shimizu, RUMOR (Ryuen Higo), 1947. p. 17.
  - 18) A.Tsujimura, "Information" in STUDIES ON CONTEMPORARY SOVIET SOCIETY (ed. by A.Tsujimura), 1970.
  - 19) H.D. Laswell, "Structure and function of Communication in Society" in MASS COMMUNICATION (ed. by W.Schramm) 1949, JT. p.8.
  - 20) P.Lazarsfeld & R.K. Merton, "Mass Communication, Popular Taste, and the Organized Action", in MASS COMMUNICATION (ed. by W.Schramm) 1949, J.T. (New Edition) p. 276-p. 282.
  - 21) J.W. Riley & M.W. Riley, "Mass Communication and the Social System", in SOCIOLOGY TODAY (ed. by R.K. Merton), 1959.

- 22) W.Schramm, "How Communication Works", in THE PROCESS AND EFFECT OF MASS COMMUNICATION (ed. by W.Schramm), 1954, p.3-p.26.
- 23) A.Inkeles, PUBLIC OPINION IN SOVIET RUSSIA, 1950.
- 24) W.Schramm, FOUR THEORIES OF THE PRESS, 1956.
- 25) A.Tsujimura, "Public Opinion and Political Dynamics in Japan", in NIHONJIN KEN-KYU, No. 4, 1976.
- 26) J.L. Martin, INTERNATIONAL PROPAGANDA, 1958.
- 27) R.T. Holt, RADIO FREE EUROPE, 1958.
- 28) A. Tsujimura, "International Propaganda", in LECTURES ON CONTEMPORARY SOCIETY AND COMMUNICATION, Vol. 4, 1974.
- 29) H.D. Lasswell et als., THE PRESTIGE PAPER, 1952.  
H.D. Lasswell et als., COMPARATIVE STUDY OF SYMBOLS, 1952.
- 30) W. Schramm, ONE DAY IN THE WORLD PRESS, 1959.
- 31) A. Tsujimura, "Mao's Death and the Japanese Responses to it", in SHOKUN, no. 11, 1976.
- 32) A. Tsujimura, "Leadership of the Big Six Papers-around the events of Hi-Jack by the red army-", in SEIRON, No.1, 1978.
- 33) PUBLIC OPINION QUARTERLY, No. 23, 1959.
- 34) A. Toffler, THE THIRD WAVE, 1980.
- 35) J.T.T., INFORMATION NETWORK SYSTEM, 1983.
- 36) A. Tsujimura, "Progress of Technology and Regress of Education", in MONBU-JIHO (Monthly Journal of Ministry of Education), No. 1, 1983.